

“충청불자 힘모아 불교 가르침 전하자”

보은 법주사, 11월 19일 조계종 제5교구 신도회 출범

24개 전체 조계종 교구 중 신도회 구성은 16개에 불과하다'는 본지 보도(11월 6일자 965호 1면) 이후 지역 교구신도회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5교구가 그 첫걸음으로 교구신도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11월 19일 정주 한마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구신도회를 출범시켰다.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을 비롯해 본사 국장 스님들과 말사 주지스님들,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그동안 주려진 임원진을 추천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11월 19일 정주 한마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구신도회를 출범시켰다.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을 비롯해 본사 국장 스님들과 말사 주지스님들,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그동안 주려진 임원진을 추천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화부장, 사회부장, 대외사업부장 등을 임명키로 했다. 교구신도회 당연직 총재로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으로 하여 본사 와도 포교 및 신도조직화에 긴밀한 관계



최윤철 변호사

최윤철 변호사, 초대 회장 선출

충북 불교계 대표인사들 대거 포진

현조 스님 “충청불자 조직화 계기”

지역신도회 전국조직망 구축 신호탄

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구신도회는 지난해 10월 조계종 측의 교구신도회 구성에 대한 지적 이후 주지 현조 스님이 신도회 구성을 공약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 3월 법주사 종무회의에서 최윤철 대표를 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차분히 회칙과 임원 구성 등을 해왔다.

최윤철 교구신도회장은 “제5교구신도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5교구 관할 사찰 신도회 및 교구에 등록된 지역단위 신도단체 회원들의 대표 기구 역할을 담당할



11월 18일 열린 조계종 제5교구 임시총회에 참여한 스님들과 선출된 임원진들의 모습(사진 위)과 출범식에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충청불자들의 모습.

것”이라며 “교구 내 사찰 상호와 발전에 호법조직으로 힘을 보태는 한편, 불교지도자 양성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불자들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구신도회는 향후 계획으로 △삼보의 호지, △교구 내 수행, 포교사업, △교구 내 불사 추진 및 지원 사업, △교구 내 불교지도자 양성, 연구, 교육 사업, △교구 내 사찰 상호, 발전 사업, △교구 내 사회, 문화, 복지 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제시했다.

현조 스님은 “불교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조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도회 발족은 충청불자들의 힘을 조직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활발히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만의 전유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알려 불교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평화와 안락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도회 측에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노덕형 기자 noduc@hyunbul.com

청화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청화 스님(1924~2003)의 열반 10주기 추모제가 11월 21일 곡성 성문사(주지 무상)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 다례제에는 문도회 의장인 용타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금강선원 대종스님, 비구니 스님, 신도회 임원 등 3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추모 다례제는 종사영반, 삼귀의, 반야심경, 청화 스님의 육성법문에 이어 헌향·헌다·헌화, 성문사 주지 무상 스님의 인사말, 용타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성문사 주지 무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은 하루 한 끼 공양과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치열한 구도자의 길을 걸으셨다”며 “하지만 후학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알기 쉽게 전해주



신 선지자였다”고 회고했다.

청화 스님은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40여년간 대종사, 사명암, 벽송사, 백장암, 상원암, 칠장사 등 선원과 토굴에서 수행정진했다. 지난 1992년 말에는 미국에서 미주 금강선원을 개설하며 해외포교에도 힘썼고 열반에 들기까지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활동했다. 스님은 지난 2003년 11월, 세납 80세, 법납 56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길상사, 남방불교의식 카티나 법회

남방불교의 승보공양 의식인 ‘카티나 법회’가 광주에서 마련됐다. 광주 길상사(주지 도제)는 11월 17일 길상사 대웅전에서 스리랑카 이주인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리랑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다.

남방불교의 전통인 ‘카티나’는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의 여름철 우기(雨期) 안개가 끝난 뒤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며 함께 독경을 하는 법회이다.

이날 법회에는 신타시리 스님(구미 마하뒸다사), 비안난다 스님(대구 황카라마), 시다라나(위덕대, 박사과정), 반야기피 스님(충남 아산), 다미다(경기 부천) 등 스리랑카 스님 13명이 동참했다.



행사를 주최한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법회는 타국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한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같이 소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창립... 3년간 이어진 내홍 끝내고 화합

11월 20일 초대회장에 증심사 연광 스님...72개 사찰 참여

지난 3년간의 긴 혼란의 시간을 뒤로하고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승가단체인 광주불교연합회가 창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20일 동구 수자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 새로운 정관과 임원 등을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90개 사찰 주지 스님 등 지역 불교계가 모두 모여 연합회 발족을 축하했다. 광주불교연합회에는 광주지역 72개 사찰이 회원사찰로 참여했다.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0여 년 광주불교를 대표했던 사암연합회에는 60여 사찰이 참여했는데 그에 비해 많은 사찰이 동참한 것”이라며 “광주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에 이어 2부 창립총회, 저녁공양이 진행됐다. 법요식에서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총회에 참여한 스님들 개개인이 자신이 연합회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

광주지역 72개 사찰 회원

지선 스님 “주인의식 가져달라”

첫 행보로 봉축기획단 발족

각으로 전면에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법요식에 이어 2부 창립총회에서는 세심정사 주지 법일 스님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돼 정관과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의 미래를 위해 최선



광주불교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감사 응묵 스님, 수석부회장 법일 스님, 회장 연광 스님, 수석부회장 명진 스님

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종단과 종파를 떠나 모두가 화합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부회장에 법일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진 스님(연화사 주지), 감사에 응묵 스님(선덕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 등 선출직 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

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중 임명직 부회장과 각 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임원진 선출이 완료되는 대로 성도제일법회와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기획단을 발족하고 광주불심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4대 종단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송월, 성흥사 주지)는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4대종단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를 개최했다. 11월 21일 군산시 종합운동장에서 4대종단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10kg들이 1,000박스의 김장김치를 담아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 8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배부했다. 또 송월 스님과 원불교 회세종 교무, 천주교 장상원 신부, 개신교 흥기표 목사 등은 종교를 초월한 사회 통합과 나눔문화 구현 등 자원봉사 활성화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는 동국사, 흥천사, 상주사, 관음사, 정안사, 불주사.



수도암 등의 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동참했다.

송월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아름다운 마음이 군산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 지역의 4대종단 지도자들도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배추 1,600포기의 김치를 담아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 이웃 375세대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2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린1개, 맨드라미, 코리시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염주는 준비물 중 이수시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맨드라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맨드라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의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회 헝겊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리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성공신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